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중국 택배 시장, 가파른 성장세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미국, 자동차 판매 부진에 따른 항만 적체 현상 심화
2. NYK, 일본 국내 물류사업 강화 위해 물류 자회사 재편
3. 일본 공동선사 ONE, 리퍼컨테이너 5,000개 추가 투입
4. 퀴네앤드나겔, AI 지원 공급망 가시성 플랫폼 출시
5. 클락슨, 2020년 세계 '컨' 물동량 전년 대비 11% 감소 전망



공지사항

-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

명사 스피치

“공사는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을 통해 경영 피해 최소화는 물론, 기간산업의 고용유지에도 노력하겠다.”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
(2020. 5. 12 /코리아슈핑가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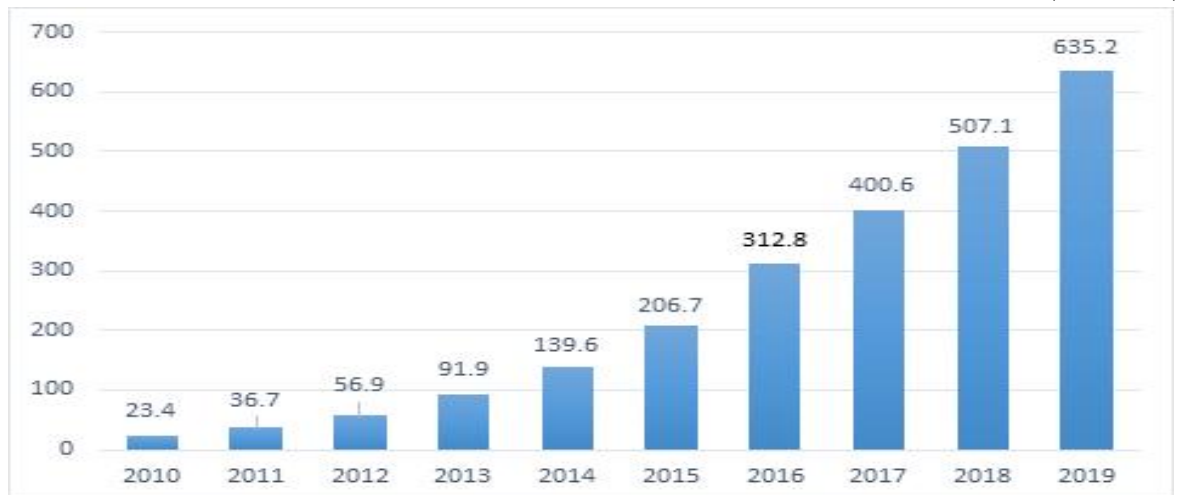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중국 택배 시장, 가파른 성장세

2010년 ~ 2019년 중국 택배 물동량 추세

(단위 :억 건)



자료 : www.baijiahao.baidu.com

- 중국 국가우정국(国家邮政局)은 “2019년 중국 택배 발전지수 보고 (2019年中国快递发展指数报告)”를 발표하면서 2020년 택배 물동량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740억 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이는 위안화로 8,690억 위안(약 1,500조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중국 택배 회사의 연간 물동량은 전년 대비 25.3% 증가한 635.2억 건이며, 수입은 전년 대비 24.2% 증가한 7,497.8억 위안을 기록함
 - 2019년 중국 택배 회사의 평균 일일 물동량은 전년 대비 25.3% 증가한 1억 7천만 개를 초과했으며, 가장 높은 물동량 기록은 하루 기준 5억 5천만 개에 달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택배 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어 품질과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서비스 수준이 증대되었음
 - 2019년 기준 택배 개발 지수는 998.3으로 전년 대비 22.6%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품질 지수는 166.0으로 전년 대비 24.4% 증가하였음
- 2019년 광둥, 저장, 장쑤 3개 성(省)의 택배 물동량 점유율은 56.4%에 달함
 - 광둥성과 저장성의 택배 사업 규모는 2018년 45.5%에서 2019년 47.3%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장쑤성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임
 - 중국 내 전자 상거래의 꾸준한 발달과 타 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중국 택배 시장은 더 큰 성장이 기대됨

참고자료 : www.baijiahao.baidu.com(검색일 : 2020.5.11)

정문석 연구원

051-797-4794, moonlightj90@kmi.re.kr



물류정책·산업동향

미국, 자동차 판매 부진에 따른 항만 적체 현상 심화

- 코로나19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항만에 도착한 자동차운반선이 하역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함
 - 미국에서 육가공 공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출하 시기를 놓친 가축을 살처분하고 우유 원유를 방류했으며 원유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4월 24일 LA항에 도착한 일본의 자동차운반선인 주피터스피릿호는 하역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2,000여 대의 자동차를 하역하지 못하고 해상에서 대기하다 29일에 하역함
- 일반적으로 자동차 공급사슬 관리는 JIT(just-in-time)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완성차를 수송해온 선박이 항만에서 대기하는 일은 흔하지 않음
 - 해운업 관계자들은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크루즈선이 바로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고 정박지에서 대기하는 일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며 이 같은 현상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언급함
 - LA항과 롱비치항에서 하역한 자동차는 수천 대의 자동차를 야적할 수 있는 롱비치 터미널을 거쳐 대형 보관 장소로 옮겨진 후 판매되나, 최근의 판매 부진으로 일부 자동차 운반선은 타 항만으로 우회했으며 출항 전인 선박도 출항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의 3월 자동차 판매량은 약 40%가 감소했으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문을 닫고 수만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음
 - IHS Markit은 올해 미국의 승용차 및 트럭 수요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25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미국 소비자 만족도 조사 전문기관인 JD Power는 6월까지 중고차 가격이 8~16%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 와이니미(Hueneme)항 관계자도 내년 자동차 출하량이 적어도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자동차 수입 물류회사들은 불황의 장기화를 예상하고 인력의 약 80%를 감축했다고 밝힘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지속되면서 수송이 중단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하역지연 사건이 발생한 닛산자동차와는 달리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자동차는 현재 자동차 수송에 큰 무리는 없으나 재고 증가 압박을 받고 있어 추가 야적공간 확보를 모색하고 있음
 - 자동차는 컨테이너 등의 화물과는 달리 2단 이상 적재가 불가능한 고가 화물이므로 재고 증가에 따른 야적공간 확보가 중요함

■ 참고자료 : www.fortune.com(검색일: 2020.5.8)

신정훈 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NYK, 일본 국내 물류사업 강화 위해 물류 자회사 재편

- NYK(Nippon Yusen Kabushik Kaisha)는 일본 국내 물류사업을 더욱 더 강화하고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물류사업 구조를 개편하기로 결정함
- 이를 위해 NYK는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YKS(Yokohama Kyoritsu Warehouse)의 주식을 자사 전액 출자 자회사인 YLK(Yusen Logistics)로 이전하는 회사 분할(흡수형 분할)을 오는 6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임
- NYK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냉장·냉동 창고 운영에 대한 YKS의 강점과 YLK의 식품유통 사업기반을 활용하여 신사업 개발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임
- YLK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일본 국내 식품유통 및 계약물류 사업 강화, 사업 확장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YLK는 식품 및 냉장보관 분야에 경쟁력을 가진 YKS와의 협업을 통해 일본 국내 식품유통 사업을 강화할 계획임
- 아울러 YKS의 숙련된 인력(창고운영, 유통가공, 운송, 배달업무 등 분야)을 활용해 일본 국내 계약물류사업 역량을 향상시킬 예정임
- YLK는 또 자사의 글로벌 운송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존 식품 보관 및 유통 서비스와 연계한 물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데 노력할 계획임

■ 참고자료 : www.yusen-logistics.com(검색일: 2020. 4. 30)

김은우 부연구위원

051-797-4680, hisgrace@kmi.re.kr

일본 공동선사 ONE, 리퍼컨테이너 5,000개 추가 투입

- ONE(Ocean Network Express)은 늘어나는 전 세계 냉장화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리퍼컨테이너 5,000개를 추가 투입할 계획을 발표함
 - 이번에 투입되는 컨테이너 5,000개 중에는 공기조절(Controlled Atmosphere, CA) 장치를 탑재한 첨단 컨테이너 200개가 포함되어 있음
- 2019년 세계 리퍼컨테이너 물동량은 아시아 중산층 확대에 힘입어 7% 이상 성장하였음
 - 아시아 중산층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욕구가 지속됨에 따라 단백질류 및 신선과일 등의 부문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ONE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성장 모멘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ONE은 증가하는 리퍼컨테이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2018년에도 14,000개의 리퍼컨테이너를 구매했으며, 지난해에도 공기조절(CA) 장치를 탑재한 500개의 리퍼컨테이너를 포함하여 40피트 리퍼컨테이너 6,000개를 발주한 바 있음
 - 다만, 이번에 추가로 구매하는 5,000대에 대한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 ONE은 현재 컨테이너 내부의 온도, 습도 등 중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IoT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리퍼컨테이너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참고자료 : <https://www.porttechnology.org>(검색일: 2020.4.26)

이지원 연구원

051-797-4799, jiwon@kmi.re.kr





퀴네앤드나겔, AI 지원 공급망 가시성 플랫폼 출시

- 물류기업인 퀴네앤드나겔(Kuehne+Nagel)은 AI를 지원하는 디지털 도로 물류 플랫폼인 sg.eTrucknow.com을 출시하여 도로 물류의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해소함
- 퀴네앤드나겔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출시되는 eTrucknow는 고객이 더 빨리 트럭을 예약할 수 있고, 운송업체는 비즈니스 기회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언급함
 - 태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eTrucknow의 기능은 싱가포르에서는 더욱 확장·강화되었으며, 퀴네앤드나겔은 화주들이 국내 도로 물류 운송에 대한 간략한 견적 비교 프로세스는 이용가능하다고 언급함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국경 간 물류배송의 경우에도 2020년 하반기에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
- 화주가 배송 관련 세부정보를 제공하면 플랫폼의 AI 지원 엔진은 각종 데이터 포인트를 검증하는 견적비교 프로세스를 간소화·자동화하여 고객에게 가장 경쟁력 있는 견적과 경로를 제시함
- 고객과 운송사의 중요 관심사인 실시간 가시성은 eTrucknow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화주와 운송사는 플랫폼의 실시간 추적 기능을 통해 자신의 발송물 또는 운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 일회 사용 화주는 납품 이정표에 대한 사전 서비스 알림을 통해 표준 가시성을 확보함
- 또한 eTrucknow는 도로화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화주들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승인된 운송업체에게 잠재적인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함
- eTrucknow 플랫폼은 퀴네앤드나겔의 디지털 혁신 프로세스 및 이니셔티브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켰으며, 올해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뉴질랜드 및 호주 전역에 배포될 예정임

■ 참고자료 : <https://www.porttechnology.org>(검색일: 2020.5.12)

이기열 부연구위원

051-797-4670, kylee@kmi.re.kr

클락슨, 2020년 세계 '컨' 물동량 전년 대비 11% 감소 전망

- 영국의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Clarkson Research, 이하 클락슨)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이 전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클락슨은 5월 7일 자 '해운시장 영향 평가'를 통해 2020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이 코로나19 사태로 전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음
 - 주요 요인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및 소비 활동의 침체, 공급사슬 붕괴 등을 지적했으며, 타 분야에 비해 해운운송 분야가 코로나19 사태의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크게 받고 있다고 우려함
 -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의 경제 활동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2020년 2사분기에 심각한 불황이 올 가능성이 있으며 그 규모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클 것으로 지적함
-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1980년대 9.9%, 1990년대 9.1%, 2000년대 7.3%, 2010년대 4.6%의 성장세를 보였음(%수치는 CAGR¹⁾ 기준)
 - 세계 컨테이너 운송 시장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이 9% 감소하며 한차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음
 - 올해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이 클락슨 전망치와 같이 전년 대비 11% 감소한다면 2009년 이래 역대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됨(그림 참조)
-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0년의 전 세계 GDP는 전년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²⁾의 전 세계 GDP가 2.5% 감소한 것보다 더욱 악화된 수치임
 - 특히 선진국 GDP의 경우, 역대 최악인 6.1% 감소가 예상됨
- 컨테이너 운송 시장이 세계 각국의 소비재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미주·유럽 등 대부분의 수요국이 '락다운(lockdown, 봉쇄)' 상황인 현 시점에서³⁾ 컨테이너 운송 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은 각각의 컨테이너 운송항로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4월 수출액은 증가세로 전환했으나(전년 동기 대비(이하 동일) 4% 증가), 미주·유럽 지역의 수요 부족으로 5월초 간선향로의 중국 항만 기항 실적이 11% 감소하는 등 향후의 불안 요소가 잠재하고 있는 상황임
 - 아시아 역내 항로의 경우, 중국 경제의 재가동으로 향후 물동량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미주 지역 간 동서기간항로의 경우, 컨테이너 물동량이 미주 지역 수요의 동향에 크게 좌우되고 현재 미주 지역에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큰 상황이므로 2사분기 물동량 추이는 2009년의 20% 감소 수준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됨

1) CAGR(연평균 성장률, Compound Annual Growth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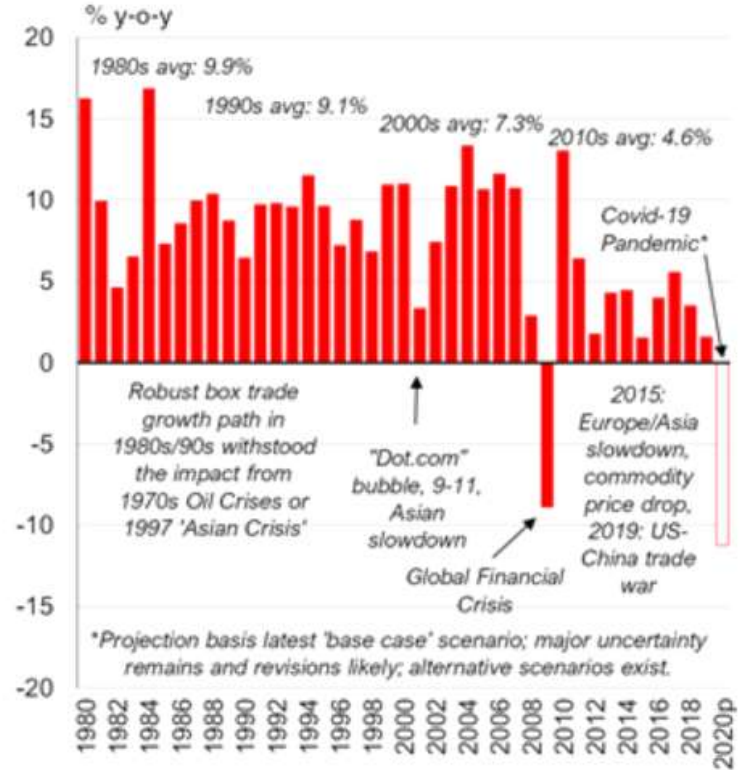
2) 정확하게는 2008년 4사분기~2009년 3사분기 기간임

3) 2020년 2사분기 초반 기준,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Lockdowns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대적 맥락에서 바라본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 추이와 2020년 전망

Container Trade: The Covid-19 Crisis In Context

The bars on the graph show estimated annual growth in global seaborne container trade. Growth rates since 2002 based on TEU-mile trade flows, estimates 1997-2001 based on TEU trade flows and estimates 1980-1996 based on total port lifts, TEU and TEU-mile trade basis 'loaded A-to-B' trade. A wide range of time-series data on seaborne trade, including in containers, is available on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See our *Covid-19 Port Call Activity Tracker* (also on *SIN*) for port call time-series analysis.



Source : Clarksons Research

자료 : sin.clarksons.net(검색일: 2020. 5. 11)

참고자료 : www.sin.clarksons.net(검색일: 2020.5.11)

한성일 부연구위원
051-797-4781, han@kmi.re.kr



공지사항

2020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수정공고

「2020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인 「2020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2020년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의 대상 기업 모집과 관련하여(20.2.24 시행)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 합니다.

	현 행	수 정
접수 기간	○ 2020.2.24.(월) ~ 2020.4.3.(금) 18:00까지	○ 2020.2.24.(월) ~ 2020.5.28.(목) 18:00까지

2020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 장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와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2020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 대상자

-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2. 대상 사업

-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

구분	사업 내용
일반진출형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인수합병형	현지 물류기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시설투자형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3. 지원내용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지원규모)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인수합병형/시설투자형)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타당성조사 보조금 지원 기준 》

구분	지원 비용	지원비율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인수합병형	최대 8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시설투자형		

□ (지원내용)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2020년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대상자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컨소시엄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대상 사업

- **(개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 판로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네트워크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

□ 대상사업 유형 예시

- ① **(동시진출형)**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에 신규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물류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는 시장에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② **(화주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물류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화주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③ **(물류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화주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④ **(현지협력형)** 현지에 진출한 화주·물류기업이 협력하여 신규 생산시설·판로·물류거점 확대, 신규법인 설립 등 각자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천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부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컨소시엄 협의 하에 선정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컨설팅 전체를 위탁 수행 할 수 있음. 단, 컨설팅 전체 위탁 시에는 신청기업의 자체 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지원 대상에 인정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0. 2. 24(월) 09:00 ~ 2020. 5. 28(목) 18:00 까지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신청서 1부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양식 1
②	사업제안서 10부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양식 2
③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양식 3
④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⑥	최근 3년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⑧	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컨소시엄 형태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가산점) 유효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서(국토부 및 해수부 장관 발행)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e-mail 접수 불가

선정 기준 및 방법

□ 선정 기준

-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 개별 통지
- 신청기업은 7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사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형태의 자료(e.g. PPT, PDF 등)로 발표 가능

□ 선정결과 발표 : 평가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붙임 참조)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4, 051-797-4913)로 문의 바람